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포의 화학자가 참여하고 교포가 운영하는 회사들이 공동으로 획기적인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최근 캐나다의 한 교포회사인 EBMR(Eastwood Bio-Medical Research Inc.)사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약품은 700여 차례의 임상실험을 실시한 결과 발병 6

개월 이내의 성인형 당뇨병을 70% 이상 치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P-700이라는 이 약품은 또 각종 천연약초에서 추출된 생약물질로 되어 있어 부작용과 내성이 전혀 없다고 EBMR 측은 발표했다.

EBMR은 이 약물이 혈당 조절뿐 아니라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을 강

화하고 근육조직에서 인슐린을 잡아치는 수용체를 다시 살아나게 해 당뇨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준다고 설명했다.

이번 당뇨병 치료제는 캐나다 켈거리대학교 당뇨병연구소가 기초연구 및 동물실험등을 실시했고 제조하는 EBMR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

ty Technologies International이라는 회사를 통해 EBMR과 상품개발 계약이 체결됐다.

이번 신약개발에 일조한 윤박사는 23년간 바이어스와 관련된 당뇨병의 원인과 예방에 대한 연구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BMR측은 "윤박사가 노벨 의학상에 두 번이나 후보 추천된 인물이므로 당뇨병 분야의 세계적인 위자"라고 소개했다.

한편 EBMR사는 로열, 델라 커뮤니케이션 장비제조, 금융투자, 국제무역등의 관련업무를 하고 있는 이스트우드(Eastwood)의 계열사이며, 의학 관련 벤처기업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포 김영수(42)씨가 운영하는 회사이다.

(민경두기자)

## 교포 획기적 당뇨병 치료제 개발

### 윤지원박사, 700여차례 임상 80% 완치

해지고 있다.

이 약품개발에는 특히 캐나다 켈거리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포 윤지원박사(아주대 외대 교수)가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윤박사는 "공동 연구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P-700)은 켈거리대학교의 산·학공조를 담당하고 있는 UTI(Universi-